

#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를 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부모지지가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체험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신경희\* · 나지훈\*\*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를 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지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체험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제5차(2023)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 1,40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SPSS 25.0과 PROCESS macro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지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지지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격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 또한 체험활동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모지지 강화와 체험활동 확대를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를 둔 다문화 청소년, 부모지지, 공격성, 우울, 체험활동

\* 주저자,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 박사수로, [napatri@daum.net](mailto:napatri@daum.net)

\*\*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 조교수, [lovewins@cu.ac.kr](mailto:lovewins@cu.ac.kr)

## 1. 서론

한국 사회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점차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과 귀화자는 25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국제결혼 비중은 10.2%로 다시 상승하며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통계청 2024).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 교육부(2024)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다문화 학생 수는 193,814명으로 전체 학생의 3.8%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문화 청소년이 더 이상 주변적 소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구성하는 핵심 세대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적 이해와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가정 내 부모의 출신 문화와 학교·지역사회에서의 한국 주류 문화라는 이중적 문화 맥락 속에서 성장한다(Berry 2005; Phinney 1990). 이 과정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체성 혼란, 차별 경험, 심리사회적 갈등과 같은 위험 요인에도 노출되게 한다(고용환·박시균 2023; 김지혜 2019). 특히 다문화 청소년 중에서도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경우는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으로 주목된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정서적 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인 모는 한국어 능력 부족, 낮은 양육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학습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이래혁 2022; 임양미 2019).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 저하, 또래관계 위축, 자아정체감 혼란, 우울 등 부정적 심리사회적 결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Wuyile·안도희 2022; 한광현·강상경 2019),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이해와 개입이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Erikson(1968)이 제시한 ‘정체감 대 역할 혼미’의 시기로, 이 시기에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지원하는 핵심적 환경 자원으로 기능한다. Bowlby(1988)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은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우울을 완화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은 심리적 취약성을 높이고 우울 증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House(1981)의 사회적 지지이론 역시 부모의 정서적·도구적 지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 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지지와 청소년 우울 간의 부적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나지훈·정혜지 2024; 여종일 2024),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체성 갈등 속에서 우울을 예방하는 핵심 보호 요인으로 기능함이 확인된다(김하나·이정화 2024; 장혜림·이래혁 2019). 그러나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앞서 논의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부모지지가 충분히 제공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우울로의 이행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같은 매개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Anderson과 Bushman(2002)의 일반공격성모델(General Aggression Model, GAM)에 따르면, 부모지지의 부족이라는 상황적 요인은 청소년이 사회적 단서를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공격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발현된 공격성은 또래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면서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형성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지지의 결핍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점(김성수 2013; 김희경·김해란 2017)과 공격성이 또래관계 악화와 사회적 고립을 매개로 우울을 심화시킨다는 점(신명진 외 2019; Dearing et al., 2006)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특히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편견과 또래 배제 등 복합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정서조절 자원이 쉽게 고갈된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적·문화적 한계로 인해 건강한 정서조절 전략을 학습할 기회도 제한된다(유지애 2023; 임양미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지지→공격성→우울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가 이 집단에서 더욱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러한 매개 경로에서 체험활동은 중요한 조절 변수로 주목된다. 체험활동은 청소년이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직접적 경험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으로(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 Lerner(2005)의 긍정적 청소년 발달(PYD) 이론에 따르면 유능감, 자신감, 관계

성, 인성, 배려심이라는 핵심 자원을 증진시키는 발달적 환경으로 기능한다. 선행연구들은 체험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김광호 2021; 이진실 2022),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험활동이 문화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연결감을 강화함으로써 공격성과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김민선·손병덕 2019; 정현준·장춘옥 2025). 즉 체험활동은 부모지지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도 가족 외적 영역에서 정서적 결핍을 보완하고, 공격성이 우울로 전환되는 경로를 약화시키는 조절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부모지지의 직접적 영향이나 공격성 혹은 체험활동의 개별적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모지지→공격성→우울의 매개 경로와 이 과정에서 체험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부모지지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 모형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이 지각한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체험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차원의 실천적 개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지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셋째, 체험활동은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 2. 이론적 고찰

### 1)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

최근 교육부(2024)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청소년 수는 약 19만 명으로 전체 초중등학생의 3.8%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나, 중·고등학교로 진입하면서 보다 복합적인 적응 과제와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소수집단 지원의 관점을 넘어, 이들이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학문적·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오정아 2019; 한광현·강상경 2019).

다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가정, 귀화 가정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정에서 성장하며, 가정 내에서는 부모의 출신 문화를,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의 주류 문화를 경험하는 이중문화적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Berry 2005; Phinney 1990). 이러한 이중문화 경험은 청소년에게 문화 수용성과 다중 정체성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언어 장벽, 가치관 충돌, 사회적 낙인이라는 심리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용환·박시균 2023; 김지혜 2019). 특히 다문화 청소년 중에서도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경우는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주목된다.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이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가정 내 양육 환경의 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된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는 자녀 양육과 정서적 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외국인 모는 한국어 능력 부족, 낮은 양육효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충분한 정서적·학습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유지에 2023; 임양미 2019). 이러한 언어적·문화적 제약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안정적 애착 형성을 방해함으로써(송미경 외 2008; Bowlby 1988), 자녀의 학업성취 저하, 또래관계 위축, 자아정체감 혼란, 우울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Wuyile·

안도희 2022; 이래혁 2022).

나아가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할 때,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대처 자원을 얻기 어려워 외부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이는 공격적 대처나 우울·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설명희 외 2023; 차승은·유정균 2019). 이러한 복합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이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이해와 개입이 요구된다.

앞서 살펴본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의 구조적 취약성은 결국 부모지지의 결핍과 이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이라는 문제로 집약된다. 선행 연구들은 부모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심리 지표에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보호 요인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나지훈·정혜지 2024; Bowlby 1988; House 1981). 그러나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제약, 문화적 차이, 어머니 자신의 적응 스트레스가 중첩되면서 부모지지가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는 이 집단에서 부모지지의 결핍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부모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개념적·이론적·실증적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도구적·정보적·평가적 형태의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House 1981), 청소년의 심리적 균형을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사회적 자원이다(박상수·안귀여루 2022; 박유강·권선주 2022). 정서적 지지는 자녀가 수용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공하며, 도구적 지지는 학업이나 일상에서의 실질적 도움을, 정보적 지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조언을, 평가적 지지는 자녀의 행동과 능력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예방하는 심리적 완충 자원으로 기능한다(김미경 2018; 최혜령·손재환 2023).

부모지지가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적 틀로는

Bowlby(1988)의 애착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초기 부모와의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지도식인 ‘내적 작동모형’을 형성하며, 이는 이후 정서조절 능력, 자기개념, 대인신뢰감,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방식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서적 보호감을 경험하고 우울로의 이행이 억제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은 심리적 취약성을 높이고 우울 증상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지지는 단순한 양육 행동의 수준을 넘어, 청소년의 내적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 관계적 토대로서 기능한다.

Cohen과 Wills(1985)의 스트레스 완충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직접 감소시킬 뿐 아니라 그것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복합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다문화 청소년에게 부모지지가 특히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지된다. 여종일(2024)은 부모애착이 초기 청소년의 우울 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가 자존감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매개됨을 확인하였다. 강희경(2017)은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이 우울에 간접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박태희와 이경희(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우울 수준은 낮아지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지지와 우울의 부적 관계는 확인된다. 김한나와 이정화(2024), 이지우와 노길희(2023), 장혜림과 이래혁(2019)은 언어·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이라는 복합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다문화 청소년에게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우울 예방의 핵심 보호 요인으로 기능함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지지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심리사회적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게 있어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을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학문적·실천적 과제라 할 수 있다.

### 3) 공격성의 매개효과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관계적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적 행동으로 정의되며(Anderson and Bushman 2002), 청소년기에는 정서적 충동성, 또래 갈등, 사회적 낙인 등의 요인으로 인해 쉽게 유발되는 특성을 가진다(Steinberg 2014). 특히 이 시기의 청소년은 정서조절 능력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이를 공격적 반응으로 전환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공격성은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긴장 상태의 외현적 표출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배경에 있는 환경적·관계적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부모지지, 공격성, 우울의 관계는 두 가지 이론적 틀을 통해 설명된다. Anderson과 Bushman(2002)의 일반공격성모델에 따르면, 부모지지의 부족이라는 상황적 요인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사회적 단서를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공격적 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며, 이렇게 발현된 공격성은 또래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형성한다. Bowlby(1988)의 애착이론은 이를 보완하는데, 부모지지 결핍으로 형성된 불안정 애착이 정서조절 능력을 저해하고 내적 긴장을 공격성으로 표출시키며, 반복된 공격적 행동이 대인관계 손상과 자기효능감 저하를 통해 우울로 귀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즉 공격성은 부모지지와 우울을 연결하는 매개 기제로서 이론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부모지지의 결핍이 청소년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김성수(2013)는 가족 간 유대감이 낮고 부모 간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구조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김희경과 김해란(2017)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남학생의 공격성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지지적이지 않은 양육 방식이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반대로 부모지지가 충분히 제공될 때는 공격성이 억제되는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 정일영(2023)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정서조절 자원을 강화하여 공격적 반

응을 완화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공격성이 청소년의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실증적으로 지지된다. 공격적 행동은 또래관계의 악화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관계적 손실과 자기비난이 우울 증상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Dearing et al. 2006; Zimmer-Gembeck et al. 2007). 신명진 외(2019)는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관계에서의 실패 경험이 누적되고, 이것이 무력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희 외(2023)는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이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지지의 상실이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공격성이 단순한 외현적 문제 행동에 그치지 않고, 조절되지 못한 부정적 정서가 내면으로 재순환되는 과정을 통해 우울의 선행 요인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Garnefski and Kraaij 2006).

#### 4) 체험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체험활동이란 청소년이 일상적 학습 환경을 벗어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체험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규정하며, 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사회적 유대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손인봉·김태형 2021; 여성가족부 2023). 체험활동 참여는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사회성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능감·사회적 연결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Lerner 2005). 이는 부모지지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에게 체험활동이 가족 외부의 대안적 보호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체험활동의 심리사회적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는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이론이 있다. Lerner(2005)에 따르

면, 체험활동은 유능감, 자신감, 관계성, 인성, 배려의 5Cs를 증진시키는 맥락적 환경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긍정적 자아상을 구축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이는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 행동을 억제하고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예방하는 보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 역시 유용한 설명 틀을 제공한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체험활동에서의 관찰학습과 모델링은 청소년의 정서조절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 이는 공격성의 발현을 억제하고 공격성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화하는 완충 기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험활동의 긍정적 효과는 다수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지된다. 이진실(2022)은 체험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김광호(2021)는 활동 참여를 통해 획득한 경험이 대인관계 능력 및 정서적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험활동이 문화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또래 및 지역사회와의 정서적 연결감을 강화함으로써 우울과 공격성을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김민선·손병덕 2019; 정현준·장춘옥 2025).

특히 부모지지가 낮아 정서적 결핍이 큰 청소년일수록 체험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 공격성 표출을 약화시키는 완충제로 기능하며,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관계망과 사회적 수용성을 경험함으로써 공격성이 우울로 이어지는 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이 보고된다(김한솔·김규찬 2023; 정현준·장춘옥 202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체험활동은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매개로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조절하는 외적 보호 자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체험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지지는 우울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둘째, 부모지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중학생의 체험활동 참여는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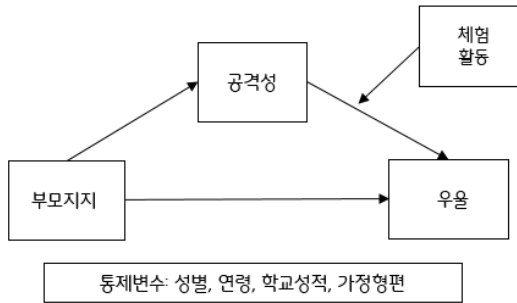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기 5차(2023) 자료를 활용하였다. MAPS 2기는 2019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초기 표본으로 구성하여 2023년까지 5개년(1-5차)간 종단 추적한 코호트로, 5차(2023년도) 조사에서는 1,843명의 다문화 청소년이 참여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해당 조사 시점은 청소년 우울과 공격성이 두드러지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개별화가 시작되는 발달적 전환점으로, 부모지지의 보호적 기능이 특히 중요해지는 시기이다(강승희 2010; 최인재 2007).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이 시기에 문화적 정체성 혼란과 또래 관계에서의 차별 경험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해당 시점 자료의 분석적 의의는 더욱 크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에 속하면서 모(母)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다문

화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부모지지, 우울, 공격성, 체험활동을 비롯한 주요 문항에 대한 무응답 데이터를 제외한 1,40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간이정신진단검사(김재환·김광일 1984) 중 우울관련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걱정이 많다.”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 (2) 독립변수: 부모지지

부모지지는 Hernandez가 개발한 학업관련 사회적지지 문항을 김순규(2001)가 수정, 보완한 부모의 교육적 지원과 기대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신다.”,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신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 (3) 매개변수: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는 .79로 나타났다.

#### (4) 조절변수: 체험활동

체험활동은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국제교류, 건강·보건, 자기개발, 환경 보전 관련 9개 활동의 참여 빈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활동에 대해 1(=없다)에서 4(=5회 이상)에 응답한 점수를 합산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체험활동에 더 많이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 (5)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교성적, 가정형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나지훈·정혜지 2024; 장혜림·이래혁 2021; 전혜숙·전종설 2020; 한광현·강상경 2019)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진 성별, 연령, 가정형편, 학교성적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성별(남성=1, 여성=0)은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연령, 가정형편(상=3, 중=2, 하=1), 학교성적(상=3, 중=2, 하=1)은 연속변수로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체험활동 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SPSS 25.0 및 SPSS PROCESS macro 3.4.2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측정도구(부모지지, 우울, 공격성)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통제변수를 투입한 상태에서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지지와 우울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델 4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하였다(Hayes 2018). 여섯째,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체험활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모델 14를 적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변수를 평균 중심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간접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통해 검증하였다(Hayes 2018). 이때 부트스트랩 샘플 수는 10,000회로 설정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분석대상은 1,408명이며, 성별은 남학생 51.6%(727명), 여학생 48.4%(681명)으로 남학생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은 14세가 97.4%(1,37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 15세 1.3%(18명), 13세 1.0%(14명), 16세 0.3%(4명), 17세 0.1%(1명) 순이었다. 학교성적은 ‘중’ 51.9%(731명), ‘하’ 26.0%(366명), ‘상’ 22.1%(311명) 순이었으며, 가정형편은 ‘중’ 62.1%(874명), ‘하’ 33%(465명), ‘상’ 4.9%(69명) 순으로 나타나, 학교성적과 가정형편 모두 ‘중’ 범주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08)

항목	구분	인원수(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727	51.6
	여학생	681	48.4

연령 (평균=14.01)	13	14	1.0
	14	1,371	97.4
	15	18	1.3
	16	4	0.3
	17	1	0.1
학교성적	상	311	22.1
	중	731	51.9
	하	366	26.0
가정형편	상	69	4.9
	중	874	62.1
	하	465	33.0

##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지지는 우울( $r=-.364, p<.01$ ) 및 공격성( $r=-.209, p<.01$ )과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공격성과 우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509, p<.01$ ). 체험활동은 부모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162, p<.01$ ), 우울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체험활동과 공격성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142, p<.01$ ).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은 .131~1.593이며, 첨도 절댓값은 .052~2.637로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4	Min-Max	M(SD)	왜도	첨도
부모 지지	1				6-24	19.41(2.90)	-.131	.052
우울	-.364**	1			5-20	7.83(2.90)	.985	.908
공격성	-.209**	.509**	1		3-12	5.50(1.94)	.372	-.445
체험활동	.162**	.051	.142**	1	9-36	12.88(4.62)	1.593	2.637

N=1,408, M=평균, SD=표준편차, Min=최소값, Max=최대값, \*\* p<.01.

### 3)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인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 연령, 가정형편, 학교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지지는 우울에 부적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335, p<.001$ ),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F=56.184, p<.001$ ), 모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t
독립변수	부모지지	-.335	0.025	-13.499***
통제 변수	성별(ref.=여학생)	-.439	0.141	-3.114***
	연령	.115	0.351	0.328
	학교성적	-.605	0.089	-6.787***
	가정형편	.061	0.109	0.559
상수항		14.570	4.965	2.935***
Model fit		$F=56.184^{***}, R^2=.167$		

N=1,408, \*\*\* p<.001.

### 4)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가설 2인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표 4>의 1단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연령, 학교성적, 가정형편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지지는 매개변수인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B=-.1204, p<.001$ )으며,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0.861, p<.001$ ).

다음 2단계에서는 모든 통제변수를 투입한 상태에서 공격성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고( $B=.6514, p<.001$ ), 부모지지의 직접효과도 여전히 유의하

였으며( $B=-.2567, p<.001$ ),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22.517, p<.001$ ). 이는, 부모지지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통해 우울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낮추고, 낮아진 공격성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간접 경로가 확인되었다.

표 4.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변수		1단계		2단계	
		종속변수: 공격성		종속변수: 우울	
		<i>B(SE)</i>	<i>t</i>	<i>B(SE)</i>	<i>t</i>
독립변수	부모지지	-.1204(.018)	-6.8511***	-.2567(.022)	-11.4583***
매개변수	공격성			.6514(.034)	19.4560***
통제변수	성별(ref.=여학생)	.0130(.099)	.1301	-.4478(.125)	-3.5754***
	연령	.0856(.248)	.3447	.0594(.311)	.1907
	학교성적	-.3845(.063)	-6.0938***	-.3544(.080)	-4.4213***
	가정형편	-.0408(.077)	-.5287	.0875(.097)	.9046
상수항		7.8768(3.514)	2.241*		
Model fit		$F=20.861$ ***	$R^2=.069$	$F=122.517$ ***	$R^2=.344$

N=1,408, \*  $p<.05$ , \*\*\*  $p<.001$ .

간접효과 유의성을 부트스트랩으로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784$ 였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ootCI:  $-.1037 \sim -.0543$ ).

표 5.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부모지지 → 공격성 → 우울	-.0784	.0126	-.1037	-.0543

## 5) 체험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연구가설 3인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있어 체험활동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표는 <표 6>과 같다. 공격성과 체험활동의 상호작용항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고( $B=-.0188, p<.01$ ), 해당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94.0183, p<.001$ ). 또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Delta R^2=.0041, F=8.755, p<.01$ ). 이는 체험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약화되며, 그에 따라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통해 우울에 이르는 간접경로의 크기(매개효과)가 완충됨을 의미한다.

표 6. 체험활동의 조절효과 검증

변수		<i>B</i>	<i>SE</i>	<i>t</i>
독립변수	부모지지	-.2653	.0227	-11.6723***
매개변수	공격성	.6446	.0340	18.9441***
조절변수	체험활동	.0324	.0142	2.2820*
상호작용항	공격성 × 체험활동	-.0188	.0064	-2.9589**
통제변수	성별(ref.=여학생)	-.4464	.1248	-3.5764**
	연령	.0827	.3103	.2666
	학교성적	-.3522	.0801	-4.3947***
	가정형편	.0924	.0964	.9579
상수항		12.8668	4.3824	2.9293**
<i>R</i> <sup>2</sup> 변화량		<i>F</i> =8.755**, $\Delta R^2=.0041$		
Model fit		<i>F</i> =94.018***, <i>R</i> <sup>2</sup> =.350		

N=1,408, \*  $p<.05$ , \*\*  $p<.01$ , \*\*\*  $p<.001$ .

조절된 매개효과는 조건부 간접효과로서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Preacher et al, 2007).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통해 조절변수를 평균 중심화 최솟값(-3.88), 평균(0.00), 평균+1SD(4.62)로 나누어 조건부 매개효과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공격성을 통한 매개효과는 체험활동의 실제 최솟값일 때  $-.0864$ (BootCI:  $-.1162 \sim -.0586$ )에서 평균+1SD일 때  $-.0672$ (BootCI:  $-.0917 \sim -.0438$ )로 낮아져, 체험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7. 체험활동의 조건부 매개효과 검증 결과

체험활동	부모지지 → 공격성 → 우울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최소값(-3.88)	$-.0864$	.0146	$-.1162$	$-.0586$
평균	$-.0776$	.0126	$-.1026$	$-.0530$
평균 + 1SD	$-.0672$	.0122	$-.0917$	$-.0438$

체험활동의 이론적 평균-1SD 값(8.26)이 실제 자료의 최솟값인 9보다 낮아, 실제 최솟값의 평균 중심화 값인 -3.88을 기준으로 조건부 효과를 산출함.

이와 같은 결과를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체험활동이 높은 집단(평균+1SD)이 낮은 집단(최솟값)에 비해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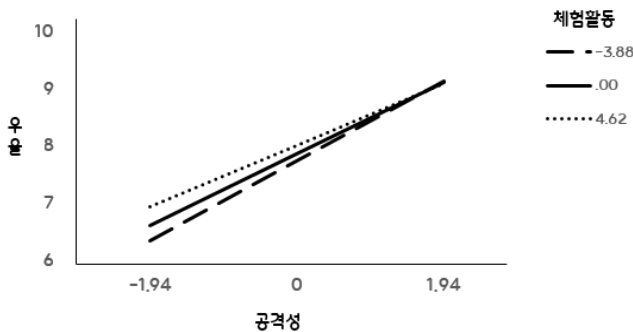


그림 2. 체험활동의 조절효과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0023

(BootCI: .0004~.0048)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를 둔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체험활동에 의해 조절된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조절된 매개지수 검증

조절변수	부모지지→ 공격성 → 우울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체험활동	.0023	.0011	.0004	.0048

##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5차(2023)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을 둔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체험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정적 애착이 정서조절 능력의 기초를 형성하여 우울을 경감시킨다는 Bowlby(1988)의 애착이론 및 부모지지가 심리적 완충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한나·이정화 2024; 박상수·안귀여루 2022; 유혜영·백진아 2023; 장혜림·이래혁 2019).

둘째, 공격성은 부모지지와 우울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도 높게 나타나는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부모지지는 공격성을 경유하여 우울과 간접적으로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지지의 결핍이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 내면화 문제를 야기한다는 선행연구(김희경·김해란 2017), 그리고 부모 간 갈등과 낮은 가족 유대가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을 높인다는 연구

(김성수 2013)와 맥을 같이한다. Anderson과 Bushman(2002)의 일반공격성모델에 따르면, 부모지지의 결핍은 사회적 단서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왜곡을 유발한다. 이는 공격적 행동의 발현을 높이고, 나아가 또래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형성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적·문화적 한계로 인해 자녀에게 건강한 정서조절 전략을 전수할 기회가 제한되어(신명진 외 2019; 임양미 2019), 이 매개 경로가 더욱 강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체험활동은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통해 우울에 이르는 매개 경로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내적 자원을 강화하고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보호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김광호 2021; 김민선·손병덕 2019; 김한솔·김규찬 2023)과 일치하며, 다문화 청소년에게 체험활동이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증진시켜 우울 및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정현준·장춘옥 2025)와도 부합한다. Lerner(2005)의 PYD 이론의 관점에서, 체험활동은 유능감과 긍정적 관계성을 경험하게 하는 발달적 환경으로서, 부모지지가 구조적으로 제한된 다문화 청소년에게 가족 외부에서 심리적 결핍을 보완하는 대안적 자원으로 기능함을 확인한 것이다.

넷째, 기술통계에서 체험활동과 공격성 간 정적 상관( $r=.142$ )이 나타난 것은 이론적 예측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학교나 기관 주도의 체험활동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선택 편향의 영향이거나, 횡단 자료의 특성상 인과 방향이 혼재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단순 상관은 제3변수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은 값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체험활동의 주효과가 우울에 정적으로 나타난 것( $B=.0324$ )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체험활동의 핵심적 기능이 우울에 대한 직접적 감소 효과보다 공격성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조절하는 데 있는 만큼, 조절효과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체험활동 참여의 자발성과 질적 수준이 반영되지 못한 측정의 한계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개별 변인의 효과에 집중한 것과 달리, Bowlby(1988)의 애착이론, Anderson과 Bushman(2002)의 일반공격성모델, Lerner(2005)의

PYD 이론을 접목하여 부모지지, 공격성, 우울, 체험활동의 관계를 통합적 모형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기존 연구가 부모지지의 직접적 영향이나 개별 변인의 효과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체험활동의 조절 기능을 통합적 모형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를 둔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한편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지지가 우울의 핵심 보호요인임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지 강화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의 확대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발달 특성, 적절한 양육기법, 정서적 의사소통 방식을 익힐 수 있는 부모교육 및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평등가족주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가정 중심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격성이 부모지지와 우울을 연결하는 매개 기제로 확인된 만큼, 우울 증상 완화와 함께 공격성 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요구된다. 학교 상담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감정조절 훈련과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입은 단순한 행동 억제를 넘어 부정적 정서를 인식·표현·전환하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공격성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험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율은 언어 장벽, 기회 부족,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김한솔·김규찬 2023; 조승연 2021), 이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서회복, 가족 참여, 문화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참여 중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강화, 언어지원 체계 구축, 가족참여형 바우

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실천적으로는 학교사 회복지사와 지역상담사의 연계 개입을 기반으로, 단기 행사 중심이 아닌 장기 참여형 정서·가족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를 둔 다문화 청 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지지가 공격성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체 험활동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한다.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 연 구에서는 심층 면접 등 질적 방법을 병행하거나 부모·교사 등 다중 정보원을 활 용하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횡단적 연구 설계로 인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모지지, 공격성, 우울의 상호 작용은 발달적으로 동적인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를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연구 가 요구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을 단일 집단으로 분석함으로써 집단 내 문화 적·언어적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출 신 문화권, 국내 체류 기간, 한국어 능력 등 배경 변수가 본 연구의 변인들에 미 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박정윤·박현지 2021). 넷째, 2차 자료 활용의 특성상 이론적 고찰에서 개념화한 부모지지의 4차원(정서적·도구 적·정보적·평가적 지지) 구조가 측정도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학업 관 련 지지 문항 중심의 척도에 한정되었다는 측정 타당성의 제약이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다차원적 부모지지 개념에 부합하는 측정도구를 별도로 구성·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신: 나지훈(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lovewins@cu.ac.kr)

Correspondence: Jihun Na(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egu Catholic University)(lovewins@cu.ac.kr)

2026.01.14 접수, 2026.01.22 심사, 2026.05.22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강승희, 2010, 중학생의 부·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강희경, 2017,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353-362.
- 고용환·박시균, 2023,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 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 사회 문제점과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5, 29-55.
- 교육부, 2024,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김재환·김광일,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III, *정신건강연구*, 2, 278-311.
- 김광호, 2021, 청소년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의 매개 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545-554.
- 김미경, 2018,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삶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0(3), 53-70.
- 김민선·손병덕, 2019,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식의 중단 매개효과: 긍정적 청소년발달(PYD) 이론의 발달자산모형 적용, *청소년학연구*, 26(12), 425-453.
- 김성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343-364.
-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행정*, 17(3), 115-124.
- 김한나·이정화,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1(11), 63-88.
- 김한솔·김규찬,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19-38.
- 김희경·김해란, 2017,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 107-135.
- 나지훈·정혜지, 2024, 다문화 중학생의 집단 괴롭힘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부모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6(1), 1-24.
- 박상수·안귀여루, 2022,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6), 81-109.
- 박유강·권선주,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7(1), 63-79.

- 박정윤·박현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157-181.
- 박태희·이경희,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3), 353-361.
- 설명희 외, 202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도덕적 이탈의 이중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41(3), 1-15.
- 손인봉·김태형, 2021,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과 공동체역식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359-368.
- 송미경 외,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신명진 외, 2019, 학교전환기와 비전환기에 따라 또래수용을 매개로 공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체육활동의 조절효과,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4(4), 79-95.
- 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 여종일, 2024,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6(1), 105-123.
- 오정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유형과 학교적응에 대한 메타분석, *학교사회복지*, 45, 159-182.
- 유지애, 202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3), 1-27.
- 유혜영·백진아, 202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3), 77-101.
- 이래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60, 25-45.
- 이지우·노길희, 2023,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 및 사회적 위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4(3), 1429-1444.
- 이진실, 2022,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가 정서적·사회적·학업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3(4), 703-714.
- 임양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8(6), 615-627.
- 장혜림·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189-218.
- 전혜숙·전종설,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및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223-255.

- 정일영, 2023,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84, 107-128.
- 정현준·장춘옥, 2025, Cultural Leisure Activities and Happines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13(3), 60-64.
- 조봉환·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승연,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6, 187-212.
- 차승은·유정균,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외국인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이주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2(3), 55-81.
- 최인재, 2007,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3), 611-628.
- 최혜령·손재환, 202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복지상담교육연구*, 12(2), 263-289.
- 통계청, 2024,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한광현·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7(1), 231-25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I/I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데이터, 제1-5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nderson, C. A. and B. J. Bushman,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27-51.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 Hall.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Books.
- Cohen, S. and T.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earing, K. et al., 2006, Childhood aggression, depressive symptoms, and peer rejection: The mediational model revisite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3), 240-24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 W. Norton.
- Garnefski, N. and V. Kraaij, 2006,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A comparative study of five specific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8), 1659-1669.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2nd ed.). Guilford Press.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dison-Wesley.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rner, R. M., 2005, *Promot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es*. White Paper prepared for the NRC/IOM Workshop.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 Preacher, K. J. et al.,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Steinberg, L., 2014, *Age of opportunity: Lessons from the new science of adolescence*. Boston, MA: Houghton Mifflin Harcourt.
- Wuyile·안도희,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 사회적 유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41-69.
- Zimmer-Gembeck, M. J. et al., 2007, A model of behaviors, peer relations and depression: Perceived social acceptance as a mediator and the divergence of percep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3), 273-302.

## Parental Support and Depress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Marriage Immigrant Mothers: Aggression as Mediator and Experiential Activities as Moderator

Kyounghee Shin\* · Jihun N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role of aggress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experiential activ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marriage immigrant mothers. Data were drawn from the 5th wave (2023) of the 2nd Panel Stud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MA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with a final sample of 1,408 adolesc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25.0 and the PROCESS macro, and bootstrapping was employ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Results indicated that agg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depression, meaning parental support affected depress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aggression. Furthermore, higher levels of experiential activity participation buffered the effect of aggression on depression.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s aimed at strengthening parental support and expanding access to experiential activities are recommended to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Marriage Immigrant Mothers, Parental Support, Depression, Aggression, Experiential Activities

---

\* First Author, Daegu Catholic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h.D. Candidate, napatri@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Daegu Catholic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ssistant Professor, lovewins@cu.ac.kr